

야생을 향한 모험의 세계를 선사하는 DEFY EXTREME JUNGLE

2024년 12월 3일, 르 로클 - 단 50피스 한정 제작되는 DEFY Extreme Jungle은 극한의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제니스의 **0.01 초 크로노그래프 시리즈**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에디션입니다. **Desert** 및 **Glacier** 에디션에 이어 출시되는 이번 버전은 길들여지지 않은 에너지와 신비롭고 매혹적인 요소로 가득한 정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제니스가 DEFY Extreme 라인의 강인한 정신을 바탕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야생의 자연에 다시금 주목합니다. 까마득한 황야든, 소위 "콘크리트 정글"로 불리는 치열한 도시든 관계없이 극한 환경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된 DEFY Extreme Jungle은 역사상 가장 견고한 0.01 초 크로노그래프에 천연 잼스톤을 결합해 완성되어 풍부한 영감을 선사하는 스페셜 에디션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복잡한 케이스 구조에 이국적인 잼스톤을 접목한 디자인은 독창성과 탁월한 기술력의 독특한 조화를 보여주며, 까다로운 성능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특별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브러싱 처리된 티타늄 소재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DEFY Extreme Jungle의 45mm 케이스는 타이거 아이로 완성된 12각형 베젤과 푸셔 부분이 특징입니다. 골드에서 브라운에 이르는 화려한 색조와 변화무쌍한 반사광, 실크처럼 부드러운 광채가 돋보이는 타이거 아이는 쿼츠 계열에 속하는 잼스톤으로, 오래전부터 주얼리 및 장식 디테일로 활용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다양한 매력을 지닌 진귀한 스톤의 특성상 각각의 시계는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타이거 아이의 컬러 스트라이프는 강인함과 신비로움의 상징인 호랑이의 수수께끼 같은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탁월한 성능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케이스는 20ATM의 방수 기능을 갖추어 극한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 디자인으로 완성된 사파이어 다이얼에서는 내부에서 시계가 작동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린 컬러로 틸트 처리한 디자인과 호랑이의 줄무늬를 닮은 타이거 컬러의 카운터로 정글 테마를 연상시키고, 이와 조화를 이루는 베이지 컬러의 야광 마커와 핸즈를 장착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가독성을 선사합니다.

DEFY Extreme Jungle의 중심부에는 오토매틱 엘 프리메로 9004 칼리버가 박동하고 있습니다. 다이얼을 통해 부분적으로 들여다보이며, 케이스백을 통해서는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고진동 크로노그래프는 제니스의 전설적인 무브먼트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버전으로, 0.01초의 정확도를 갖추어 현재 출시된 제품 중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로 손꼽힙니다. 크로노그래프는 각각의 동력원과 레귤레이팅 기구를 갖춘 2개의 독립적인 메커니즘으로 구동되며, 타임키퍼용은 5Hz(시간당 36,000회), 크로노그래프용은



50Hz(시간당 360,000 로)로 박동합니다. 크로노그래프 세컨즈 핸드는 엄청난 속도로 작동하는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1 초에 한 번 회전하며, 탁월한 가독성을 선사하는 0.01 초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무브먼트는 카키 그린 컬러의 메인 플레이트와 마찬가지로 카키 그린 컬러의 새틴 브러싱 처리된 로터를 갖추어 정글에서 영감을 받은 마감 기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DEFY Extreme 은 또한 실용적인 스트랩 교체 시스템을 갖춘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이는 케이스백의 푸시 버튼을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Jungle 에디션의 경우 티타늄 브레이슬릿, 티타늄 폴딩 버클을 갖춘 카키 그린 엠보싱 러버 스트랩, 블랙 벨크로 스트랩까지 총 3 개의 스트랩이 제공되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50 피스 한정 제작되는 DEFY Extreme Jungle 은 전 세계 제니스 오프라인 및 온라인 부티크와 공식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 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 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 비행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총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제니스는 1969 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계속해서 0.1 초까지 측정 가능한 Chronomaster 컬렉션과 0.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DEFY 컬렉션을 통해 정밀한 고진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 측정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니스 HORIZ-ON 이니셔티브는 포용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직원의 복리 후생이라는 세 가지 헌신을 약속합니다. 제니스는 1865 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차원을 향한 열정적인 도전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DEFY EXTREME JUNGLE

레퍼런스: 95.9202.9004/26.1001

핵심 사항: 0.01초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제니스만의 시그니처인 초당 1회 회전수의 역동적인 성능(크로노 핸드).

크로노미터 인증.

스크류-인 크라운.

사파이어 다이얼.

티타늄 브레이슬릿. 추가 스트랩 2개 포함: 폴딩 버클이 장착된 카키 러버 스트랩
1개 & 블랙 벨크로 스트랩 1개.

교체 가능한 스트랩 시스템.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9004

진동수:

시계용 이스케이프먼트 1개(시간당 36,000회 - 5Hz)

크로노그래프용 이스케이프먼트 1개(시간당 360,000회 - 50Hz)

파워 리저브: 약 50시간

기능: 9시 방향에 위치한 스몰 세컨즈.

0.01초 크로노그래프: 초당 1회 회전하는 센트럴 크로노그래프 핸드, 3시 방향에 위치한 30분 카운터,
6시 방향에 위치한 60초 카운터, 12시 방향에 위치한 크로노그래프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션.

마감: 무브먼트에 카키 그린 컬러 메인 플레이트, 새틴 마감 처리된 카키 그린 컬러 스페셜 로터.

가격: 25,900 스위스 프랑 / 28,000 유로

소재: 브러싱 처리된 티타늄 & 타이거 아이 젬스톤.

방수: 20ATM

케이스: 45mm

다이얼: 세 가지 타이거 컬러의 카운터를 탑재한 틴트 처리된 사파이어.

핸즈: 로둠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아워 마커: 로둠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크리스탈: 양면에 반사 방지 처리한 평평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브레이슬릿 & 버클: 스트랩 3 개 포함: 티타늄 브레이슬릿, 티타늄 폴딩 버클을 갖춘 카키 그린 엠보싱
러버 스트랩, 블랙 벨크로 스트랩.

